

변해가는 도시 만나러 오늘도 ‘산책 버튼’

이다의 도시 관찰일기

이다 지음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이다의 책은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과 웃음, 몽클함의 함께 하는 그의 글과 그림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가 100% 손으로 쓰고 그린 여행 노트 ‘내 손으로, 시베리아’를 읽고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신작 ‘이다의 도시 관찰 일기’ 역시 ‘이다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담긴 책이다. 전작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를 통해 새와 꽃, 나무 등을 만났던 저자의 시선이 이번에는 ‘도시’로 향했다. 그는 “자연을 관찰하다 궁금한 것은 도감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도시의 경우 발견한 어떤 미스터리를 스스로 추리해야하는데, 그게 바로 도시관찰의 재미”라고 말한다.

때가 되면 ‘산책 버튼’이 눌러지는 저자는 매일 집을 나서 1시간 정도 산책한다. 어딜 갈지, 뭘 원하는지 잘 모르지만, 매일 나오다 보니 작은 변화도 눈에 잘 보이고 그 변화들은 이야기가 된다. 그는 “밖으로 나서 관찰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이해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 길을 나선다.

관찰의 전제는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 것. 옹고 그림과 좋고 나쁨을 따지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도시에서 관찰한 것들의 목록은 흥미롭다. 경고문, 주차금지 설치물, 의자, 화분, 쓰레기, 빌라, 나무, 꽃, 상가건물, 가게, 간판, 버스 등이다.

치질 전문 병원 ‘위대함 의원’ 간판, ‘이곳에서 일하는 부족한 소인은 여러분의 신발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구두 수선집 안내문, 주차하려는 자와 주차를 막으려는 자의 놀라운 창의력을 만나는 주차금지 설치물 등 도시에서 발견한 것들은

그만의 독특한 그림체로 책에 등장한다. 압권은 버스 내의 좌석을 세세하게 분석한 ‘버스명당 분석도’로 버스를 탈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다의 관찰 장소는 주로 서울이지만 오래된 문방구와 청과물 가게, 수많은 정보 담고 있는 간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빌라 등 어느 ‘동네’에나 있는 것들이기에 모두에게 친숙하다.

그의 도시 관찰 일지에는 물론 ‘사람’도 포함된다. 청과물 가게에서는 맛있는 수박을 고르려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노후를 배우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마을 버스 기사와의 만남을 통해 ‘삶을 지탱하는 고귀한 노동공간인 버스’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들이 ‘개개인의 인격체’임을 깨닫는다. 흥매화가 만개한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책임감 강한 안전요원 어르신들을 살피며 어떤 일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은 채 부분만으로 판단해버리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이 도시 관찰 일기를 쓰는 건 변화를 받아



이다 작가의 도시 관찰은 변해가는 도시를 기억하고 만나는 과정이다. 도시를 산책하다 만난 청과 가게를 그린 삽화. <반비 제공>

들이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어느날 갑자기 변화를 맞닥뜨린 게 아니라 변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 이유도 알고 있고, 변화의 맥락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그렇게 이 도시 안에서 내가 아는 맥락을 넓혀가며 이 도시는 드디어 ‘나의 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광주 지역 관찰기는 없나 싶었는데 책 마지막에 손님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리며 “많이 먹어잉?”하고 인사를 하던 식당 아주머니의 이야기와 오래된 음악감상실 ‘베토벤’의 간판이 등장해 반가웠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무엇을 보게 될까?” 궁금해하는 이다가 말한다. “같이 관찰해요!!” <반비·1만9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사랑 그리고 다른 사고실험들(소피 워드 지음, 이수현 옮김)=‘죄수의 딜레마’, ‘중국어 방’ 같은 철학적 사고실험을 테마로, 사랑과 상실, 우주와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열 편의 연작소설. 엄마를 잃은 소년 아서가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 인간의 뇌에 들어간 게임의 여정 등 초현실적 상상력으로 삶과 죽음을 성찰한다. 부커상 등 유수 문학상 후보에 오른 지적이고 감각적인 데뷔작. <문학동네·1만7000원>

▲이토록 다양한 클래식(김수연 지음)=클래식 음악이 감정의 처방전이 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저자가 직접 선곡한 70곡의 클래식을 ‘집중력·자존감·불면·우울’ 등 감정별로 안내하며, QR코드를 통해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게 구성했다. 어려운 용어 없이 누구나 쉽게 클래식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이고 따뜻한 음악 에세이. <기디언·1만8800원>

▲용 심리학 개념어 사전(대릴 샤프 지음, 고혜정 옮김)=용 심리학을 개념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용 전집 20권을 바탕으로, 각 개념어의 실제 사용 문맥을 충실히 담았다.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 원전의 흐름을 따랐으며, MBTI 등 용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도 유익하다. <CRETA·1만9800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고명환 지음, 고현석 옮김)=‘부’에 관해 고전 속에서 해답을 찾는다. ‘위대한 개츠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등 다양한 고전을 통해 돈과 성공, 삶의 태도에 대한 통찰을 끌어낸다. 실패와 회복, 독서와 실천을 반복하며 터득한 저자만의 통찰이 담겼다. 누구나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부’에 이르는 길을 안내한다. <라공·1만7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사과의 몸속에는 사각형이 살고 있어(권기덕 지음, 도원 그림)=“사실 내 몸속에는 사각형이 살고 있어요/사각사각 사각사각/소리 들리나요?” 상상력이 톡톡 튀는 동시로 어린이의 일상을 특별하게 비춰주는 동시집. ‘사각사각 사과 속에 사각형이 살고 있다’는 재치 있는 발상부터, 콜라처럼 출렁이는 바다, VR 속 수달 친구까지, 아이들이 각자의 시공간에서 마음껏 놀고 상상하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창비·1만3000원>

▲나의 커다란 초록 손(매슈 그레이 구블러 지음, 심연희 옮김)=커다란 초록 손을 숨기고 살아온 소녀 레노어가 손의 정체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책. ‘다름’을 틀림으로 여겼던 주인공은 초록손과 닮고 화해하는 과정

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서로 다른 색을 지닌 두 존재가 진심으로 연결되며 다양성과 존중의 의미를 전한다. <창비교육·1만6800원>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박효연 지음, 배철웅 그림)=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을 여덟 편의 이야기로 풀어냈다. 폭염과 폭설, 가뭄과 산불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을 겪은 어린이들의 시선을 따라 기후 변화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각 이야기 뒤에는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정보 코너와 함께 생활 속 실천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기후 위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픈북·1만4500원>

세상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이다

듣기의 철학

정경영 외 지음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다. 익숙한 소리도 있고, 낯선 소리도 있다. 어떤 이는 특정한 소리에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무감각하다.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각기 반응을 한다.

자크 아탈리는 “세상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이다”고 했다. 우리는 활자 문화, 다시 말해 무언가 읽는 것에 익숙하다. 주도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그 것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 익숙하다.



그러나 소리에 대해서는 자신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청취는 단순히 듣기를 넘어 사유가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어떻게 들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이나 행동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해와 공감의 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오해를 낳기도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듣기를 매개로 한 ‘듣기의 철학’은 듣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듣지 않는가’라는 부제처럼 인간은 선택적,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한 소리만을 취사 선택해 듣는다.

음악학자인 정경영 한양대 작곡과 교수와 비롯해 김경화 한양대 음악연구소 연구부교수 등 모두 7명의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다. ‘소리’와 ‘듣기’를 모티브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젠더, 권력, 환경을 아

우르는 통찰을 제시한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모든 소리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생, 구성, 소통, 수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젠더에 따라 소리를 듣는 것과 방식도 상이하다고 본다.

일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걸으며 했던 실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 여학생들은 ‘구두 굽이 부딪히는’ 소리를 짚은 반면 남학생들은 전혀 무슨 소리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관심의 차이,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낳은 현상이다.

책에는 20세기 이후 소음이 예술 재료로 쓰이게 된 내용도 다루고 있다. ‘4분 33초’ 침묵을 매개로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존 케이지의 사례 등도 흥미롭다. <굴출판·2만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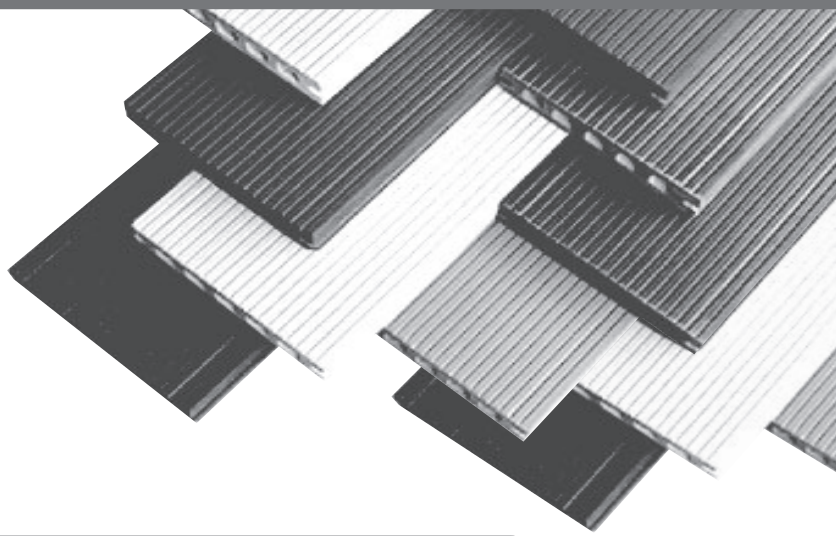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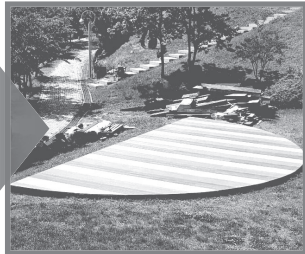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